

새 등번호 단 이우성 “배움의 자세로 때 기다린다”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새 번호를 단 KIA 타이거즈 이우성이 긍정적인 자세로 때를 기다린다.

KIA 외야수 이우성에게 올 시즌은 ‘새로움’이다. 지난 겨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고, 등 번호도 37번에서 25번으로 바꿨다.

지난 시즌까지 박찬호가 사용했던 25번은 KIA에서 이범호 코치를 상징하는 번호다. 팀을 대표하던 우타자로서의 번호를 단 이우성은 KIA가 기대하는 장타력을 갖춘 우타자이기도 하다.

올 시즌 1군에서 타자들의 조련을 맡은 이범호 코치 역시 팀의 오른손 거포 갈등을 풀어 줄 후보 중 하나로 이우성을 꼽는다.

이우성은 “어렸을 때부터 달고 싶었던 번호이고 (25번을 쓰던) 찬호도 마침 바꾼다고 해서 25번을 달게 됐다”며 “일단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작년에 2군에 있을 때 이범호 코치님한테 여쭙보기도 했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또 “앞에 (25번) 인팩트가 컸다. 물론 잘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하고 싶지만, 일단 감독님의 생각이 팀을 위한 방향이니까 새 번호 달고 팀을

더욱 치열해진 외야 경쟁에도 더 멀리 보고 배우는 기회로 수비 자신감... 타격은 진행형 팀을 위한 시즌 보내고 싶어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의미 있는 번호로 새 출발은 했지만 산 넘어 산의 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나성범이라는 슈퍼스타와 새 외국인 소크라테스가 외야 두 자리를 선점해 놓은 상황. 빠른 발의 고종욱이 새로 영입됐고, 지명타자로 활약했던 최형우도 다시 글러브를 들었다.

겨울 사이 외야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이우성은 조급함 대신 ‘배움의 자세’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다.

이우성은 “성범이 형, 종욱이 형 등 유명한 잘하는 형들이 왔는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배우려고 한다. 종욱이 형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는데 잘치는 사람이나 치는 부분 봐주고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말을 많이 해주신다”며 “성범이 형도 스타고 형우 선배도 워낙 좋은 선배이고 종욱이 형도와

서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형이다. 눈으로 봐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배우면 나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들이 잘하면 내가 뒤에서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 야구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겨울이지만 더 멀리 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이우성의 생각. 캠프도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지난 시즌 부쩍 수비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캠프에서도 수비는 만족스럽다. 타격은 진행형이다.

이우성은 “던지는 것과 수비하는 것은 너무 좋다. 시합을 안 해봤는데 타격은 연습 때 괜찮은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코치님의 방향성이 비슷하다. 코치님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야간에 매일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며 “세계만 치려고 했는데 코치님이 ‘앞으로 칠 줄 알아야 된다’, ‘밀어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 시즌 때 준비하고 있는 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연히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팀을 위한 것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팀을 위한 시즌, 배움의 시즌을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우성(왼쪽)이나성범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 김민영, 장애인동계체전 ‘4관왕 위업’

대회 최우수 선수상...전남 금 8·은 4개로 사상 최다 금메달 획득

전남 동계체전선수단이 전남지역 장애인, 비장애인을 통틀어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금 8개, 은 4개로 종합 6위(9,041.40점)를 차지했다.

전남 장애인 체육회는 “전남이 따낸 금메달은 장애-비장애 선수를 아울러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다”라며 “전남이 하계 체전에 집중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선제적으로 동계종목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민영(시각)은 바이애슬론(금 2개), 크로스컨트리스키(금 2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남 최초 4관왕에 올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3km와 6km IDD 2관왕에 오른 박영순(덕수학교)은 최우수 동호인상을 수상했다. 박영순(지적)과 최재형(지적) 각각 크로스컨트리스키 부문 2관왕에 올랐다.

광주 선수단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종합순위 16위(1,214점)에 올랐다.

김세정은 바이애슬론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 모두 4개 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민영이 16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시각) 6km 경기에서 11분25초2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손흥민의 토트넘 7월 한국 온다

프리시즌 투어로 2경기 진행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30)이 속한 토트넘(잉글랜드)이 올여름 한국을 찾는다.

토트넘 구단은 16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2022-2023시즌을 준비하며 7월 한국을 방문하는 프리시즌 투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해외 프리시즌 투어를 펼쳤던 토트넘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했는데, 올해 재개를 알리며 한국 방문을 발표한 것이다.

토트넘은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인 피치 인터내셔널과 쿠팡이 기획하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두 경기를 치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일시와 상대 팀, 장소 등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토트넘은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이 2015년부터 활약하는 클럽이며, 여자팀에는 전 대표팀 주장이자 한국 축구 역대 A매치 최다 출전자(139경기)인 조소현(34)이 지난해부터 뛰고 있다.

토트넘은 2005년 피스컵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 적이 있고, 2017년 5월 글로벌 메인 스폰서인 AIA그룹의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방문 역시 AIA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돼 무척 설렌다. 대부분은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열정적인 한국 팬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경기를 위해 가득할 스타디움의 멋진 분위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상혁 실내 높이뛰기 2개 대회 연속 우승

유럽에서 남자 높이뛰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고 있는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또 한 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우상혁은 16일(한국시간)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실내 육상대회에서 2m35를 넘어 우승했다.

2021년 실외 세계랭킹 1위 일리아 이바뉴크(러시아)는 2m31로 2021-2022시즌 실내육상 세계랭킹 1위 우상혁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날 우상혁은 2m16, 2m21, 2m25, 2m28, 2m31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2m33 1차 시기에서는 바를 건드렸지만 2차 시기에 통과했고, 2m35는 1차 시기에 성공했다.

2m33을 넘을 때 이미 대회 우승을 확정지은 우상혁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2m36 보다 1cm 높은 2m37에 도전했지만, 1~3차 시기에 모두 바를 건드려 한국 신기록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하지만 우상혁은 또 한 번 2m35를 넘어서며 ‘월드클래스’의 위상을 과시했다.

우상혁은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해

2m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세계육상연맹이 2021-2022시즌 시작일로 정한 2021년 11월 이후 나온 시즌 최고 기록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이날까지 실내, 실외 경기에서 2m35 이상을 뚫 점퍼는 우상혁, 단 한 명뿐이다.

16일 반스카 비스트리차 경기장에는 235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우상혁의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중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우상혁이 2m35를 성공했을 때는 함성도 쏟아졌다.

우상혁은 “지난 6일 올 시즌 세계최고기록(2m36)으로 우승해 좋은 기분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며 “모든 관중이 손뼉을 치며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환경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재미있게 경기했다. 좋은 기록과 함께 열을 만에 다시 우승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전지훈련과 세계육상실내투어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한육상연맹에 감사하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 3관 킹메이커
- 4관 언차티드,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넷: 해저동굴 대탈출
- 5관 언차티드
- 6관 언차티드
- 9관 나일 강의 죽음
- 7관 씨네캐슬 해적: 도깨비 깃발
- 8관 씨네캐슬 나일 강의 죽음, 리모리쉬 피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